#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

제정 : 2014년 1월 3일 제1차 개정 : 2015년 3월 7일

제2차 개정 : 2019년 2월 26일 제3차 개정 : 2022년 3월 24일

제4차 개정 : 2024년 2월 20일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약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연합회) 상포계가 상 포계 회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맞춤형 직거래 방식 정의)

- 1.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 발생시 연합회 상포계에서 파견된 장례지도사가 상포계원과 상담을 통해 장사물품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.
- 2. 예를 들어 상포계회원이 미리 수의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수의를 제외하고 장사물품을 공급하며, 장례서비스 인력은 문상객 수에 맞춰 제공한다.
- 3.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다.

#### 제3조 (상포계 회원의 자격)

- 1.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은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.
- 2. 기업 및 단체 등 법인은 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별도의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.

#### 제4조 (상포계 가입과 탈퇴 및 제명)

- 1.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으로 1회 이상 상포곗돈을 납입하면 연합회 상포계회원이 된다.
- 2. 상포계 회원은 소속조합을 탈퇴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3. 상포계 회원이 소속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제명될 경우 자동으로 연합회 상포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4. 상포계 회원이 탈퇴 및 제명될 잔여 상포곗돈 중 장례서비스 원가인 76%를 환불한다.

#### 제5조 (상포곗돈)

- 1. 상포계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상포곗돈 3만원은 장례서비스 원가 2만2800 원(76%)과 조합비 7200원(24%)으로 구분한다.
- 2. 조합비는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하고, 장례서비스 원가는 적립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단(회장, 상임이사, 감사)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회원 소속 조합원 1인당 6000원(20%, CMS 기준)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.
- 2-1. 장례서비스 원가는 연합회에서 적립하여 장례발생시 사용하거나 상포계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시 환불하여야 한다.
- 2-2. 상포곗돈 배분 비율은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- 3. 적립된 장례서비스 원가를 2-1항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 총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6조 (상포계 비용정산)

- 1. 상포계 회원이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포계는 맞춤형 직거래 총 원가에 24/76를 추가하여 총 상포계 비용을 청구한다.
- 2. 총 상포계 비용에서 상포계원이 기 납입한 상포곗돈은 전액 공제하여 정 산한다. 단 기 납입 상포곗돈이 총 상포계 비용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상포 계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.
- 3. 상포계는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에 상포계 지원 인건비를 8만 원 이상 지급한다.

## 제7조 (상포계 서비스 이용 권리)

- 1. 상포계 회원과 회원의 직계 가족(부부를 기준으로 양가의 직계가족)은 상 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. 상포계 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상포계 가입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.
- 3.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상포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, 상 발생시 장례식에 대한 상세한 내역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

#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약은 상포계 서비스 기관인 ㈜한두레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 요건을 충족시킨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개정) 이 규약의 개정 내용은 총회의 개정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.

# 제3조(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)

연합회 상포계는 2019년 1월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주식회사한두 레가 운영했던 상포계서비스 제공, 조합원 관리, 상포곗돈 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2019년 1월 31일 부로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다.